

2018

—
밀알 소식지

여름호 Vol.62

미아 리리

MIRAL Welfare Foundation





Cover Story

제15회 밀알콘서트 관람을 위해 세종대학교 대양홀을 찾아온 장애인 관람객과 공연관람을 안내하는 사회복지사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해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옹호하고,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NPO입니다. 우리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기구로 종교, 인종, 정치적 이념을 넘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제호 밀알Miral [통권62호]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발행 및 편집인 정형석
기획과 편집 미디어홍보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방포대로1길 34(수서동)
대표전화 02-3411-4664
후원회원전용 1600-0966
팩스 02-3411-4779
디자인 ㈜이룸디자인
인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리드릭

홈페이지 www.miral.org
이메일 miral@miral.org
페이스북 facebook.com/miral4664
블로그 miralorg.blog.me
트위터 miral1993
인스타그램 @miralwelfarefoundation

밀알복지재단 소식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리드릭(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03 한 알의 밀알 감동의 밀알콘서트와 대박 행진 기빙플러스	32 연결의 파트너 아소비 공부방 '어린이 미래 인성교육'
04 한 컷의 밀알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	34 일상 속의 장애인 찬란한 미래
06 기획특집 하나 되는 축제, 제15회 밀알콘서트	36 Give 스타 엄마! Khadgi(카드기)언니가 편지 기다려 - 하고은 후원회원
10 함께 만든 변화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40 활동 보고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14 현장이야기 1 '브릿지라이딩', '브릿지바자회'	43 현장 소식 · 법인사무처 소식 · 지역본부 / 해외사업장 소식 · 산하시설 소식
18 현장이야기 2 MBC<나누면행복> 레바논 촬영기	48 후원회원 안내 · 2017 선물보내기 캠페인 결과보고 · 후원사업명 변경안내
22 현장이야기 3 탄자니아 신기다 뉴비전스쿨 준공식	50 결산 보고 2018년 2분기 밀알복지재단 결산보고
26 현장이야기 4 함께 꿈꾸는 봄날의 기적	
28 현장이야기 5 우리가 만든 작은 빛, 커다란 희망을 밝히다	

감동의
밀알콘서트와
대박 행진
기빙플러스



우리 밀알은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사업들을 실천하고 있어서 항상 분주하고 행사 또한 많은 편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던 4월부터 밀알콘서트가 열렸던 6월에 이르기까지 지난 2분기 동안에도 밀알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특히 두가지 열매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정성이 깃든 마음으로 작은 자들과 함께 해주신 밀알가족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픈했던 '기빙플러스 (Giving+)'는 기업의 재고물품을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장애인 및 다문화 등 소외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사회공헌스토어입니다. 작년 서울석계역에 1호점을 오픈했는데,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연이어 2호점을 서울구로지벨리상가에 오픈했습니다. 또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날에는 기빙플러스 3호점을 서울문목지하철역에 오픈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한 기빙플러스는 현재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3개 점포에 취약계층 8명을 고용하게 된 일입니다. 그동안 물품을 기부해 주신 분과 이러한 기부 통로를 홍보하고 연결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상품이 있는 기빙플러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더 많이 기부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8일, 세종대학교와 함께 개최하였던 제15회 밀알콘서트는 그동안의 장애통합음악회 역사 중에서도 단연 재미와 감동이 넘쳤던 공연이었습니다. 2회 공연에 3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하였고, 약 4억 5천만 원의 기금이 마련된 풍성한 음악회였습니다.

밀알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음악을 즐기며 사회통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이번 밀알콘서트에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더하고자 사회자도 장애인 아나운서와 비장애인 아나운서가 함께 진행하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공연하였습니다. 또한 음악과 무용을 접목하여, 감동과 재미에 보는 즐거움까지 더한 신나는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획과 총연출을 맡아 품격 있는 음악회를 만들어주신 윤경희 세종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의 재능 기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은 2018년 7월 15일, 설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밀알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실로 기적과 감동이 넘치는 역사였습니다. 언제나 헌신해주시고 협력해주신 밀알가족들의 큰 사랑과 수고는 밀알이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밀알이 실천해 온 사업마다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성과 투명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겸손(Modesty), 진실(Integrity), 존중(Respect), 옹호(Advocacy), 사랑(Love)의 밀알(MIRAL)정신으로 한 길을 달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정신을 잃지 않음으로서 풍성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정경석

그 목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에 얽은
또렷하고 청아한 목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심는 이 작은 밀알이,
우리의 작은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된다는 사실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지체, 시각,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박모세 성악가가 밀알콘서트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다



하나 되는 축제, 제15회 밀알콘서트



지난 6월 8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 '제15회 밀알콘서트'가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약 3천명의 장애인, 비장애인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즉석에서 어린이 관객을 초청하여 공연을 펼친 뮤지컬 배우 남경주

국내 최대의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음악회 밀알콘서트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에 시작되어, 매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동시에 나눔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15회 밀알콘서트'에는 작년에도 멋진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셨던 세종대학교 윤경희 교수가 다시 한 번 총연출과 기획을 맡았습니다. 출연진도 한층 더 화려해져, 코리안 피스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박인욱의 지휘로 멋진 무대를 선보인 카이로스 앙상블과 세종오케스트라, 유명 뮤지컬 배우 남경주, 기적의 성악가 테너 박모세,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과 김지선, 실력파 남성중창단 S Vision-Voice, 그리고 장선희 발레단이 다채롭고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영찬 교수의 연출 아래 펼쳐진 장선희 발레단의 '헝가리안 댄스', '가장행렬', 그리고 '백조의 호수' 공연은 그야말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몸짓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현재 뮤지컬 <시카고>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남경주는 이번 공연에서 '마법의 성', '맨 오브 라만차', '지금 이 순간' 등 유명한 뮤지컬 곡을 부르며,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공연장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며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화합과 소통의 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 뮤지컬 배우 남경주 -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이창훈과 함께 김나연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있다



<You raise me up>을 부르는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 박모세 성악가



백조의 호수 공연을 펼치고 있는 장선희 발레단의 아름다운 모습



마음과 소리로 교감하며 협연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과 김지선



공연을 관람중인 장애인 관객

또한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꿈을 이룬 장애인들이 출연하여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이창훈은 연합뉴스TV 앵커로 활약 중인 김나연 아나운서와 호흡을 맞추어 매끄러운 진행으로 공연의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영유아시기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복합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끝내 성악가의 꿈을 이룬 박모세의 공연 또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테너 박모세는 이 날 공연에서 '나의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인 김지선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과 섬세한 교감을 나누며 환상적인 협연을 펼쳤으며, 발달장애인 첼리스트 차지우와 허주희는 비장애인 오케스트라와의 아름다운 협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통합콘서트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매년 밀알콘서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밀알콘서트처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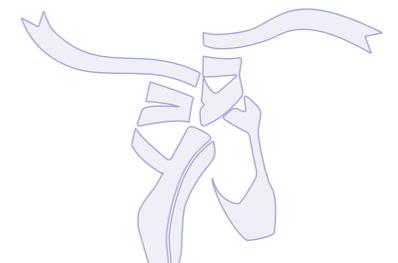
- 밀알콘서트에 참여한 어느 관객의 말 -

질 높은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힘썼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의 보다 편안한 관람을 위하여 공연장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었고, 모든 공연 프로그램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 관객들의 공연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로 15년째 밀알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재능기부로 공연에 참여해주신 출연진 분들과 후원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관객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밀알콘서트를 통해 모인 모든 후원금은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굿윌스토어와 노인복지시설 설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 -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즐겁고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전하는 따듯한 마음



서일대학교 주거환경 리모델링 봉사활동

밀알복지재단의 국내아동결연대상자인 예은이(가명, 7세)를 돕기 위해 서일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다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건축공학과 김명희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한 복지주거'를 주제로 마음과 지혜를 모아 예은이를 위한 멋진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펼쳤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은이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시신경장애로 걸음이 불안정하여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심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운 타일을 잘못 디더 넘어지거나, 지나치게 높고 나무의 결이 일어나 있는 거실 문턱에 걸려 다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이 협소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예은이가 활동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려운 경제형편과 예은이의 간호 문제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할 여유를 갖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장애특성 맞춤형 리모델링

학생들은 예은이네 집을 방문해 현재의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장애아동의 집을 장애 특성에 맞게 수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세세한 작업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리모델링 시공기간 동안, 학생들은 먼저 집 안의 오래





청소 중에 한 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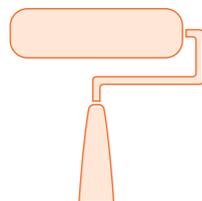
하나도 안 힘들어요!

방치된 집을 치우고, 함께 집안을 청소해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벽지를 새로 도배하고, 오래된 장판도 새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예은이의 장애특성에 맞추어 화장실 바닥에는 강도 높은 논슬립(non-slip) 타일을 시공하고, 방과 방 사이의 높은 문턱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예은이의 방은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 연령과 아이의 성장정도, 그리고 아동심리에 적합하도록 고려된 맞춤형 인테리어를 적용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다양한 외부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클리닉 저널’에서는 중복장애에 대한 의료적 자문과 가구를 후원해주었습니다. 또한 방 인테리어를 위해 ‘서얼어린이집’,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큰 작업이었던 화장실 전면 개보수에는 ‘주함건설’, ‘GYG엘리베이터’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한 복지주거 프로그램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실제 지역사회에 접목시켜 대학의 사명 중 하나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성’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밀어 주신 건축공학과 교수님들과 봉사 활동 과정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힘 써준 17명의 건축공학과 학생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자리에서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사업을 후원해주신 많은 업체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서일대학교 우제창 총장 -



예쁜 집에 친구를 초대했어요!

여러 도움의 손길 덕분에 모두들 처음 계획보다도 멋진 결과물이 나온 것 같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은이를 비롯해 예은이의 가족들 모두가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선 집 분위기가 너무 밝아졌고요. 집이 정리가 되어서 너무 깨끗해요. 욕실이 미끄럽지 않아서 예은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세면대도 낮게 설치해주셔서 스스로 양치하고 세수하고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거실에 문지방이 없어지면서 예은이가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어졌고, 혼자서도 방에서 부엌과 거실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어제는 친구도 초대해서 집 자랑을 했어요. 친구를 한 번도 초대할 적이 없었는데 리모델링 공사 덕에 예은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 예은 어머니 -

예은이와 가족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됨으로써, 예은이의 건강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고단한 삶 속에 조금이나마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활짝 웃는 예은이와 어머니



제 책상 예쁘죠?

‘브릿지라이딩’, ‘브릿지바자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리(Bridge)가 되기를



밀알복지재단의 홍보대사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브릿지라이딩’과 ‘브릿지바자회’라는 이름으로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릿지’라는 이름에는 이 행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리(Bridge)’의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라이딩과 바자회를 통해 모인 기부금 및 수익금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엄마 성하은(가명)씨와 딸 서예은양의 의료비로 전달되었습니다.

엄마 성하은(가명)씨는 갑작스런 낙상사고로 하반신마비와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평소에도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해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12월 태어난 예은이가 신생아금단중후군과 동맥관 개존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이 모녀와 세상을 잇는 다리(Bridge)가 되어주었습니다.

‘예은아 병원가자!’ 저소득 장애아동 치료비를 위해 달리는 ‘브릿지라이딩’
‘브릿지라이딩’은 자전거 라이딩과 기부가 결합된 형태의 나눔 캠페인입니다. 평소에도 자전거 라이딩 애호가로 알려진 진태현 홍보대사는 이미 2016년 가을부터 개인 SNS를 통해 ‘브릿지라이딩’ 참가자를 모집하고 함께 라이딩 코스를 완주 후 참여자들과 후원자분들로부터 모아진 기부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해왔습니다. 2018년의 첫 번째 ‘브릿지라이딩’은 예은이가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 자전거도로





현장이야기 1



브릿지바자회



브릿지라이딩



브릿지라이딩을 마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브릿지바자회에 참여한 셀럽과 브랜드 담당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를 출발점으로 경기도 성남시 미금역 인근까지 탄천을 따라 25km를 왕복, 총 50km 코스를 라이딩 하였습니다. 진태현 홍보대사와 함께한 8명의 라이더들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참여자들과 함께 마음으로 예은이를 응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이날 무려 1,3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이 라이딩을 통해 모아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누군가를 돕고 싶지만 그저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나눔이 기분 좋은 일이 되어야 해요. 즐겁게 운동하고 동시에 의미 있는 기부도 하는 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태현 홍보대사 -

따뜻한 마음이 모인 <브릿지바자회> 현장

한편, 박시는 홍보대사는 동료배우 7명(이태란, 유선, 한채아, 박탐희, 황보, 양정원, 민아)과 함께 지난 5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브릿지커피에서 제2회 '브릿지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다방면으로 꾸준히 선행을 펼쳐온 배우들이 의기투합하여 진행한 '브릿지바자회'는 기획부터 준비,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배우들이 직접 참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배우들이 준비한 각자의 애장품 외에도 16개의 브랜드업체(찰리스 캔들, 폴라탐, 썸명굿, 팜팩토리, 제이에스플라워랩, ASL쥬얼리, 경기도주식회사, 핑크 배터리, 오조드파파, 로지오가닉, 크리스탈e컴퍼니, 스미스티, 알렉스더커피 등)가 바자회 상품을 기부했습니다. 8명의 여배우와 16개의 참여업체는 1,600여만원의 수익금 전액을 예은이와 엄마가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리(Bridge)가 되고 싶어요

'브릿지라이딩'과 '브릿지바자회'를 통해 전달된 의료비로 예은이와 엄마는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진태현, 박시는 부부 홍보대사는 '브릿지라이딩'과 '브릿지바자회' 외에도 밀알복지재단 온라인 아동결연 캠페인, 시리아 난민 지원 캠페인 등에 꾸준히 동참하며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태현, 박시는 부부 홍보대사의 선한 마음이 모두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MBC <나누면행복> 레바논 촬영기

시리아 난민촌을 가다.



빽빽하게 늘어난 난민 캠프의 모습

밀알복지재단은 현재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난민촌에서 인도적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우리는 시리아 현지에서 난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밀알학교를 취재하고, 난민촌의 실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MBC<나누면행복> 취재진과 동행했다.

서울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경유하여 16시간 만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다시 다마스쿠스 하이웨이(시리아 수도로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시리아 국경 5km를 앞두고 자흘레 지역에 다다랐다. 이곳에만 시리아난민 8만 명이 살고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시리아난민은 총 65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현재 레바논에 살고 있으며, 이는 터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유엔난민기구 2018.2월 조사 기준)



곳곳에 크고 작은 규모의 캠프가 3,000여개나 된다. 이곳 자흘레 지역에 사는 난민의 80%가 여성과 아이들이다. 이들이 살고 있는 텐트는 주로 재활용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간단하게 구분된 방과 부엌이 있다. 텐트는 주로 시멘트 바닥 위에 세워져 있는



8개월 전 레바논으로 피난 온 림(12살)



농장으로 가는 트럭 짐칸에 위태롭게 올라탄 여성들

데, 그 위에 카펫을 깔고 생활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바닥에서 그냥 생활하기도 한다. 외부에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지만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곳 난민 여성들은 아침마다 30~40명씩 트럭에 올라타 인근 농장에 나가 일을 한다. 트럭에는 10살 안팎의 어린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파라하(10살)는 이른 아침부터 꼬박 12시간 잡초 뽑는 일을 하고 우리 돈 4,000원을 번다. 이마저도 겨울이 되면 일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8개월 전 레바논으로 피난 온 림(12살)은 매일 어머니와 함께 폐지와 고물을 주우며 살고 있다. 피난길에 헤어진 아버지는 생사조차 알 길이 없고, 하루 중일 쓰레기통을 뒤져 버는 3,000원 가량의 돈으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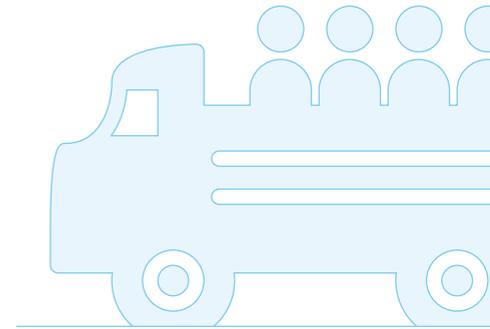
난민촌에서 만난 마람(9살)은 시리아에서 폭격으로 발에 부상을 입었다. 부상에 대한 치료는 겨우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발목이 휘어 추가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람의 오빠 무함마드(17살)도 폭격으로 왼쪽 팔을 잃었다. 그럼에도 가족들을 위해 농산물을 운반하고 한 손으로 트럭을 운전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난민촌을 돌며 채소와 과일을 파는 메이자르(13살)는 새벽 6시부터 하루 11시간씩 일한다. 8살 때부터 일을 시작한 메이자르는 6남매 중 첫째다. 어린동생들, 특히 소아마비를 앓는 둘째를 돌봐야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또래의 아이들

처럼 평범하게 놀고 싶고, 평범하게 학교도 다니고 싶을 텐데... 메이자르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하다며 카메라 앞에서 씩 웃는다.

전쟁으로 인해 시리아의 여성과 아이들은 타국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 특히 아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도 빼앗기고, 생계 때문에 피치 못하게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밀알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자홀레 지역에 밀알학교를 세워 연 300명의 아이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청소년직업학교를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메이자르(13살)와 가족들의 모습



자홀레 지역 '밀알학교' 학생들



메이자르는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탄자니아 신기다 뉴비전스쿨 준공식

2018년 4월 24일,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에서 북서쪽으로 약 720km 거리에 위치한 신기다(Singida)지역 킴뷔(Kiomboi) 마을에서 신기다 뉴비전스쿨의 준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학교 설립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여 신기다의 내일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넣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열악한 탄자니아의 교육상황

탄자니아 정부 통계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학령기 아이들 중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약 8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시에 비해 학교나 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한 시골지역의 교육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신기다 지역의 학령기 아동 15만 명의 아이들 중 43%에 달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늦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며, 정부는 신기다 지역을 탄자니아에서도 가장 빈곤한 5개 지역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기다 뉴비전스쿨이 지어진 신기다 킴뷔 마을 주민들 역시 발농사나 가축몰이를 한 일당으로 하루 끼니를 먹고사는 저소득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경제 상황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애로 인해 경제능력을 상실한 가정의 아이들은 아예 교육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신기다 뉴비전스쿨을 소개합니다

신기다 뉴비전스쿨은 일반교실 9동, 유희실, 교사 및 행정실, 창고 및 화장실,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공식 때 지역 관계자와 주민들이 학교를 돌아보며 가장 놀라워했던 곳은 바로 연령을 고려해 설계된 화장실과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었습니



다. 학교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 2개씩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 입구와 교실 입구의 턱을 낮춰 장애인 아이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들을 학교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몬테소리 같은 활동적인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희실 공간을 따로 만들어 참여형 수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학교의 자랑인 강당은 탄자니아의 건축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큰 원형지붕을 얹어 높은 천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강당은 학부모들의 정기적인 모임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기다 뉴비전스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맹준호 이사장)에서는 학교의 건축설계를 전적으로 맡아주셨으며, 한원포럼, 한울, 마루, 다우, 동부파트너스 등 많은 건축설계사무소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황순옥 후원자님의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포함) 건축을 위한 후원과 온누리교회 가정사역공동체(소망1순)의 정기후원으로 신기다 뉴비전스쿨을 완공할 수 있었으며, 서일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명희 교수께서는 적극적인 후원(모금)사업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신기다 뉴비전스쿨의 총 건축면적은 822.35㎡로, 시공기간은 2016년 4월부터 총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건축설계 과정에도 약 2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신기다 뉴비전스쿨이 향후 기숙사를 포함하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장될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기다 뉴비전스쿨 준공식 기념촬영



학부모 대표와 인사를 나누는 정형석 상임대표



학교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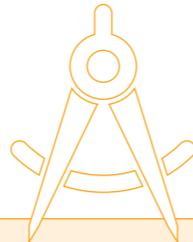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준공식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가 지어지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뉴비전신기다스쿨의 준공식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시작이자 멋진 미래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학교가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며 준비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교육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가 모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생각이 교류하고, 변화를 위한 활동이 시작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축가 이호진 교수가 말하는 신기다 뉴비전스쿨 설계방향

탄자니아의 내일을 위한 학교건축을 설계하는데 무엇보다 고심했던 것은 건축 속에 아이들을 향한 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고민 속에서 다섯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건축디자인의 설계방향을 구상했다.

- 첫째, 학생과 학생간의 사랑과 어울림이 만들어지는 학교
- 둘째, 교사와 학생의 가르침과 배움이 살아있는 평등하고 진취적인 교실
- 셋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 넷째, 사람과 아프리카 자연 속의 안정과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다섯째, 학생의 연령에 맞는 학교교육과 환경 추구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초등학교는 열린 수업을 위한 융합적 환경, 중등학교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그룹화와 그룹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제시하였다. 유치원, 초, 중, 고 과정까지 학교 발전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특색을 살리면서 이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도 구비하였다.

연결된 동선의 모티브는 아가페(사랑)이며,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모태를 형상화하였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며, 교육의 힘이 한 아이와 가정, 지역사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학교 설계 속에 담아내고자 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탄자니아를 향한 한국의 많은 후원자들의 사랑과 소망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이호진 건축가에 대하여

뉴비전스쿨의 기본 설계를 담당한 이호진 건축가는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명예교수로, 지난해까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시설 대응 연구’ 그리고 1,000여개 이상의 신개축학교 ‘기본계획연구’를 통해 낙후된 교육시설의 청사진을 제안한 선구자로서, 『학교건축계획』, 『한국 학교건축의 과거와 미래』 등 지속적인 저술활동을 통해서도 교육시설 분야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교육환경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꿈꾸는 봄날의 기적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약 251만 명으로, 대한민국 국민 스무 명 중 한 명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장애는 잘 보이지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 차별의 시선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MBC와 함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봄날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최근 MBC<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휴게소 완판녀'로 등극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개그우먼 이영자가 MC로 출연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하며 기꺼이 출연을 결정하였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밀알이 4월에 함께 진행했던 장애인식개선 커피나눔 행사에도 참여해 주었던 가수 '신현희와 김루트'가 특별 방송 게스트로 출연하여 감동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봄날의 기적>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어떻게 다가야 할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MC를 맡은 이영자 씨는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인다면 그들과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다. 무조건 어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먼저 다가가 물어보고 손을 내밀면 그들도 웃으며 응답할 것'이라며 토크콘서트 내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든든한 중계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관객과 소통하는 '봄날의 기적' 토크 콘서트



신현희와 김루트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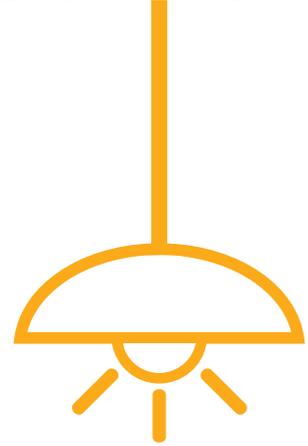
한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아동가정의 안타까운 사연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7살 정우는 스스로 호흡조차 하지 못하는 사지마비 상태로, 24시간 정우의 곁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는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정우에게 필요한 우유, 기저귀 값 외에도 매달 지출되는 상당한 비용의 의료비 등으로 어머니는 앞이 캄캄합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9살 다현이는 어머니 역시 '쉐그렌'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다현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불안을 줄이려면 꾸준한 통합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비가 없어 겨우 약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내에는 약 9만 명의 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정우와 다현이의 사례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가 더욱 악화되는 아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범하던 가정도, 아이의 간호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취약계층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영자씨는 '장애인 10명 중 9명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이며 '장애와 가난이라는 것이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봄날의 기적> 특집방송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을 위한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영자씨도 장애아동 가정의 아픔에 공감하며, 광고 출연료 전액을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과 수술이 시급한 장애아동들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장애를 '겉모습이 조금 다르고 개성이 강한 사람' 정도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 개그우먼 이영자 -

봄이 되면 우리는 작고 연약한 새싹들이 공공 얼어버린 땅 속에서 솟아나는 기적을 목격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소통의 의지도 봄날의 새싹들처럼 세상의 편견과 차갑게 언 현실을 보란 듯이 뚫고 훈훈한 봄바람을 몰고 오는 <봄날의 기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빛, 커다란 희망을 밝히다

콜라 2병에 담긴 의미

2012년 여름, 밀알복지재단은 한 기업의 도움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한별학교에 태양광 랜턴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랜턴을 나눠주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 학부모와 학생이 태양광랜턴을 나눠준 한국인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선물이라며 손에 들고 온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콜라 2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콜라 2병의 가격은 한 달 월급의 1/5에 해당 정도로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는 반자마자 알았지요. 평소 밤이 되면 그저 막막한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던 이들에게 환한 태양광랜턴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는 들었습니다. 그날 이 태양광랜턴이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한별학교 선생님 -

그날 받았던 2병의 콜라는 에티오피아의 밤처럼 어두운 검은색이었지만 그들이 전한 감사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태양광랜턴의 빛처럼 밝고 환하게 빛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해외 에너지 빈곤국가에 희망의 빛을 전하는 밀알복지재단 '라이팅칠드런' 캠페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불빛, 희망이 되다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5년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약 50,000 가정에 태양광랜턴을 보급하여 희망의 불빛을 밝혔습니다. 태양광랜턴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4월, 아프리카 말라위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 '라이팅 말라위' 캠페인을 통해 태양광랜턴 5,000개를 전달한 이후, 은코마 마을 사람들의 삶에 생긴 변화들에 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푸리(Phiri)의 가정은 태양광랜턴을 사용한 이후 등유램프에 들어가던 기름 값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푸리'는 태양광랜턴으로 밤에도 기름값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학기에는 무려 2등을 했다며(기존 23등) 몹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안젤리나(Angelina)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랜턴을 배분 받은 이후, 밤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25등에



현장이야기 5

서 12등으로 향상된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전달하더니, 최근에는 5등까지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랜턴을 전달받고 난 이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가정,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겼으며 고마움을 전달한 가정, 야간에 길을 다니기 편해졌다는 감사함을 표현한 가정 등 다양한 피드백을 전달받았습니다.

“태양광랜턴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랜턴 덕분에 이 곳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아주 높아졌어요. 이 작은 ‘불빛’이 얼마나 말라위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께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희망의 빛이 이 땅을 더욱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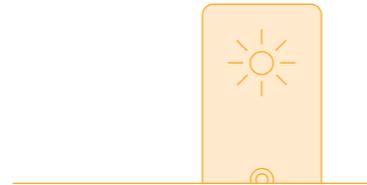
- 말라위 정문수 지부장 -

태양광랜턴, 솔라미2

2018년 6월, 라이팅칠드런 캠페인팀은 기존의 태양광랜턴 ‘솔라미’를 더욱 개선한 새로운 태양광랜턴 ‘솔라미2’를 완성했습니다. 개량된 태양광랜턴은 손잡이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랜턴 거치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광각을 넓혀 더 넓은 범위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향상된 기술을 적용해 기존보다 밝기를 강화시키면서도 오히려 제작비용과 무게를 기존보다 줄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태양광랜턴 만들기

‘솔라미’ 태양광랜턴 조립 키트는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 설명서를 따라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키트를 이용한 에너지 나눔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임직원 봉사활동에 활용하면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나눔 가치와 문화 확산, 조직력 강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창출합니다. 기업 뿐 아니라 대학교, 병원, 백화점 등 지역 협력을 통한 태양광랜턴 체험교실 운영도 가능해 시민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랜턴 이렇게 변했어요!



솔라미 1
(2013 ~ 2018. 5월)



솔라미 2
(2018. 6월)

- **넓어진 광각**
렌즈의 발광 각도가 45도에서 90도로 확대
- **단가 절감**
생산단가 16.6% 절감, 더 많은 랜턴 지원 가능
- **휴대성 향상**
거치대 일체형으로 편의성과, 휴대성 향상
- **배송비용 절감**
무게 13g 감소(138g → 125g)로 랜턴 배송비용 절감



개성있게 꾸며 완성한 태양광랜턴의 모습들

7월 체험교실 운영일정

-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광명점
7/2 - 7/6
- 영풍문고 종로본점
7/2 - 7/6, 7/9 - 7/13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7/9 - 7/13
- 일산백병원 나눔강좌
7/14
- 롯데아울렛 광고점
7/16 - 7/21, 7/23 - 7/28
-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
7/16 - 7/20, 7/23 - 7/28
- 국립과천과학관
7/31

8월 체험교실 운영일정

- 국립과천과학관
8/1 - 8/3
- 서울시립과학관
8/7 - 8/10, 8/14 - 8/17
- 잡월드
8/7 - 8/10, 8/14 - 8/17
- 고양어린이박물관
8/7 - 8/10, 8/14 - 8/17, 8/21 - 8/24

* 체험교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랜턴 임직원 봉사활동

지난 6월 15일, 네패스 오창 본사에서는 에너지 빈곤국가에 태양광랜턴을 전달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임직원들은 태양광랜턴을 조립하며 에너지 빈곤 국가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접했습니다. 한 임직원은 ‘새로운 봉사활동을 접하게 되어 재미있었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개인적으로도 랜턴을 더 만들어 전달하고 싶다’는 소감도 전했습니다.

* (주)네패스는 반도체부품 소재 전문 회사로 밀알복지재단과는 2014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오창 본사 뿐 아니라 서울, 왜관, 익산, 음성 등 전국 단위로 매월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양광랜턴 임직원 봉사활동 문의 | 전략사업부 CSR협력팀 070-7462-9055

대학 캠퍼스 태양광랜턴 조립체험교실

지난 3월, 새 학기를 맞이한 열정으로 가득 찬 캠퍼스 안에 태양광랜턴 조립체험교실 부스를 마련하였습니다. 태양광랜턴 체험교실 부스에서는 직접 태양광랜턴을 조립해 보며 전기 없이 살아가는 아프리카 오지마을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 배우고, 에너지 나눔도 실천합니다. 조립체험 부스에서는 태양광랜턴 조립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실천 교육과 희망의 편지쓰기 등 에너지 나눔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나눔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 3월~4월 동안 연세대 국제캠퍼스 외에 19개 학교가 라이팅칠드런 태양광랜턴 체험교실에 함께 하였습니다.

태양광랜턴 체험교실 문의 | 전략사업부 미래나눔팀 070-7462-9063

어린이 미래 인성교육

아소비 공부방



아이들의 소중한 비전을 위한 에너지 나눔 교육

'어린이 미래 인성교육'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구환경교육'과 에너지 절약을 통해 전기 없이 살아가는 에너지 소외국가를 돕는 '인성교육'으로 이루어진 10회 차 교육패키지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짜인 커리큘럼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10인 이상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전기 없이 살고 있는 제3세계 에너지빈곤국에 태양광랜턴을 보내는데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연결의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유기농 교육'을 추구하는 '아소비' 공부방입니다. 지난 5월 25일, 밀알복지재단은 전국 800여개의 아소비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미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밀알복지재단과 아소비 공부방은 에너지빈곤국 아이들을 위한 나눔 교육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동그란 모양에 알록달록한 색이 보이는 나는 누구일까요?”, “지구!”

선생님의 질문에 너도 나도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지난 5월 31일, 밀알복지재단의 '어린이 미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아소비 공부방 서울 천호점의 이미경 원장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소비 공부방 서울 천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경 원장이라고 합니다.

Q. 어린이 미래 인성교육을 시작하게 된 사연이 있나요?

A. 카페 글을 통해 알게 됐어요. '어린이 미래 인성교육'이라는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카페에 올라온 자료들과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1회부터 10회 차에 이르는 교육커리큘럼이 그에 맞는 교구재들과 함께 알차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선착순 50개원만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는데, 제가 신청하고 몇분 지나지 않아서 접수가 마감되더라고요. 아마 다른 지점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을 거예요.

Q. 어린이 미래 인성교육을 직접 진행해보시니 어떠셨나요?

A. 새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재미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수업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을 진행해보니 아이들의 수업반응도 너무 좋아서 다른 교육회차도 빨리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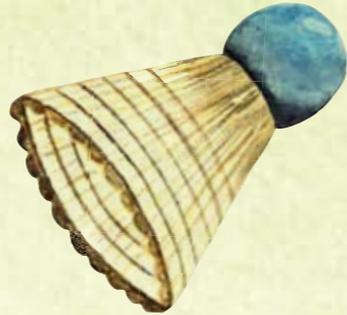
A. 아이들이 나눔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전기가 없는 에너지빈곤국 사람들의 삶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주니 자연스럽게 공감해 나가더라고요. 에너지교육이 자연스럽게 아이들 생활 가운데서 절약하는 습관, 나눔을 실천하는 일로도 연결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나눔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고 또 다양하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저희 공부방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나눔에 대한 교육들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늘 함께하고 있지만 장애가 지닌 또 다른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으로, 장애인 친구로 그리고 장애아 부모로 산다는 것, 실제로 겪었던 장애관련 일상 속의 이야기를 세상의 많은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열린 제3회 '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작품을 소개합니다.

찬란한 미래



익숙지 않은 마스크 때문인지 자꾸 안경에 김이 서렸다. 담당 간호사를 도와 동생이 누운 침대를 검사실로 밀고 가는 동안 김이 서린 안경을 이리저리 흔들어 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 희뿌연 안경이 꼭 우리 가족의 미래인 것 같아 마음이 불안했다. 갑자기 쓰러진 동생의 검사결과는 급성 신부전증이었다. 녀석의 나이는 고작 스물일곱이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여유도 없었다. 투석을 시작한지 두 달 만에 동생은 사람구실을 못할 정도로 망가졌다. 방법은 신장이식뿐이었다.

신우염을 앓고 있던 나는 신장 기증을 하기에 부적합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엄마처럼 우리 남매를 키운 고모가 이식을 하시겠다고 나섰다. 이식 수술을 하던 날, 세상에 돌만 남은 가족을 모두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울며 기도를 했다. 제발 더는 누구도 내 곁에서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무사히 돌려보내 달라고.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불러대며 초조한 시간을 겨우 견뎠다.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고 나서야 두 사람이 돌아왔다. 그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감격스러워 고된 병원 생활도 힘든 줄 몰랐다.

다시는 뿌연 안경 같은 미래가 없을 줄 알았다. 성공적으로 이식을 마쳤으니 이것으로 끝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는 불행이 또 동생을 찾아왔다. 살아남기는 했지만, 동생은 더 이



상 이십 대의 건장한 청년이 아니었다. 부작용이 관절을 망가뜨려 바로 설 수조차 없었고, 피부는 온통 고름으로 뒤덮였다. 녀석은 휠체어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 이식된 신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해진 식단, 약 먹는 시간을 지켜야 하고, 일정량 운동도 해야 했다. 그러나 동생은 이런 모습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다. (...중략)

그러던 어느 날, 집근처 강변에서 동생이 두 눈을 크게 떴다. 신기한 마음에 녀석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휠체어를 탄 몇 명의 청년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신체적 한계를 이겨내고, 배드민턴을 치는 그들에게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동생은 한참이나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닦던 그들이 환한 미소로 동생을 반겼다. 오랜만에 또래와 대화를 나누는 녀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감돌았다. 집에 돌아온 동생은 내가 조금씩 챙겨준 용돈으로 배드민턴 라켓을 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마구 뛰었다. 폼프를 움직일 때 물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 한 바가지의 물을 붓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한다. 나는 배드민턴이 동생 인생의 마중물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동생은 꼬박꼬박 배드민턴 모임에 나갔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동생이 옷장을 뒤적거리며 예전에 입던 옷들을 찾았다. 몸이 마르면서 입지 못하게 된 옷들이었다. 불그스름하게 생기가 도는 얼굴이 아프기 전의 모습처럼 건강해보였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동생은 식단표와 약 먹는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계속 배드민턴을 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자 이식된 신장도 거부반응을 이기고 적응하기 시작했다. 검사결과를 들은 고모와 나는 부둥켜안고 방방 뛰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 때 알았다. 동생의 상태가 안정되어가자 고모와 나도 다시 일상을 회복했다. 그러자 녀석이 친선시합에 우리를 초대했다. 한 번도 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고모와 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시합이 열리는 날 아침, 미리 대관한 체육관은 금세 열기로 가득 찼다. 마침내 시합이 시작되었다. 한참 뒤 차례가 다가오자 녀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배드민턴 채를 고쳐 잡았다. 셔틀콕을 받아치기 위해 녀석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그 진지한 몸짓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게 동생이었다. 무엇이든 진지한 태도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녀석의 삶이었다. 망가진 몸속에 갇힌 채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동생이 어둠을 극복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 녀석의 마음에도 단단한 근육이 붙은 덕분일 것이다. 시합을 마치고 우리는 녀석을 데리고 근처 소핑몰에 들렀다. 동생에게 잘 어울리는 새 운동복을 사주고 싶었다. 그 동안 제대로 적응을 할지 몰라 대충 못 입게 된 옷을 입고 운동을 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새로 산 운동복을 입은 동생은 여전히 매일 배드민턴 채를 잡는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잊지 않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는 더 이상 뿌영지 않다. 녀석이 배드민턴 채를 잡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한, 그 무엇보다 찬란할 것이다.



‘엄마! Khadgi(카드기) 언니가 편지 기다려.’

글 회원관리부 장혜민 | 사진 미디어홍보부 오솔길

하고은 후원회원

2011년부터 해외아동 1:1결연후원을 통해 네팔의 아동을 후원하고 계신 하고은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남편 김민성님, 자녀 김태림양과 함께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결연아동을 응원해주시는 하고은 회원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A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하고은입니다. 2011년에 저희 딸 태림이를 임신하면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태림이도 후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후원 장려 캠페인을 보면 ‘엄마, 저 사람은 안 도와줘?’라고 말하곤 합니다.(웃음)

다양한 후원분야 중 해외아동 결연을 신청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처음 후원을 신청할 당시 국내장애아동을 후원하던 남편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아동을 후원하고 싶은지를 저에게 물어봤었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의 상황이 좋지 않아 미국민의 후원으로 쌀과 라면을 지원받아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기회가 된다면 내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2011년 연말에 TV에서 우연히 기아철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당장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아

동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후원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후원이 벌써 7년이 되었네요. 매년 결연아동이 보내온 편지나 아이들의 성장과정이 담긴 우편물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교류를 통해 쌓인 정 때문인지 지금은 저보다도 저희 남편과 아이가 더 후원에 적극적이에요.

자녀 태림양이 어린나이에 후원에 대한 생각이 깊은 것 같네요. 엄마로서 뿌듯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카드기(결연아동)와 편지로 소통해 온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일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기더라고요. 자기가 받는 얼마 되지 않는 용돈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겠다는 오백 원, 천 원씩 꼬박꼬박 저금통에 돈을 모으곤 합니다. 저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다가도 제가 이 돈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해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하기도 해요. 물론 아직 어려서 결국 장난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요.(웃음) 그래도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얻을 수 있는 행복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해주고 싶어요.



Q&A

결연후원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결연아동이 보낸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정말 기뻐요. 수학 수업을 가장 좋아하고,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의 후원을 통해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고, 선생님이라는 꿈을 키워갈 수 있어 고맙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사실 매달 3만원을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의 아이를 위해 후원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나의 작은 후원을 통해 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카드기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한동안 편지를 못 썼더니 카드기언니가 편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요.(웃음) 이렇게 결연아동과 주고받는 편지가 후원의 보람을 배가시키는 것 같아요. 혹시나 쑥스러워 편지 쓰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꼭 용기를 내어 결연아동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고은 회원님께서 전해주시는 편지에는 자녀 김태림양이 결연아동을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 감사드리며, 밀알복지재단은 모든 후원자님이 결연아동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림양이 그린 Khadgi(카드기)언니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홍보대사 표인봉



안산 밀알콘서트 사회

4월 24일, 표인봉 홍보대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함께하는 안산 밀알콘서트 사회를 맡았습니다. 안산밀알콘서트 취지에 공감해 3년째 진행을 맡고 있는 표인봉 홍보대사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홍보대사 박시은 외 여배우 7인

(이태란, 유선, 한채아, 박담희, 황보, 양정원, 민아)



<브릿지바자회> 진행

5월 12일, 박시은 홍보대사 외 여배우 7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리(Bridge)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브릿지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배우들이 직접 기획부터 준비, 판매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부된 수익금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엄마 성하은(가명)씨와 딸 서예은양 의 의료비로 전달되었습니다.



홍보대사 진태현



<브릿지라이딩> 진행

5월 8일, 진태현 홍보대사는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을 위한 2018년 첫 번째 '브릿지라이딩'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가을에 시작되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브릿지라이딩은 자전거와 기부가 결합된 새로운 나눔 캠페인입니다. 진태현 홍보대사는 '즐겁게 운동하며 의미 있는 기부도 하는 행사에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 사진 자전거생활 최웅섭 팀장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홍보대사 정소민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 위촉

5월 31일, 배우 정소민이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안면장애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안면장애아동 지원 캠페인 '웃어요'에 재능기부로 참여해주셨던 정소민 홍보대사는 앞으로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봉사활동과 캠페인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이돌그룹 NCT



<인블라썸> 전시회 오디오 가이드 참여

아이돌그룹 NCT는 성인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젝트 <인블라썸> 전시의 관람객들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NCT 멤버인 재현, 자니, 유타, 쿤이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녹음한 작품 해설 담은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다양한 관람객들의 작품 이해를 도왔습니다.



캐릭터 홍보대사 뚜앙



밀알복지재단 캐릭터 홍보대사 위촉

6월 26일, EBS 똥똥유치원의 메인 캐릭터 '뚜앙'이 밀알복지재단의 캐릭터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뚜앙'은 앞으로 밀알복지재단의 '어린이 미래 인성교육' 콘텐츠 및 교구재 제작에 참여하여, 전국 유아기관 어린이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국내소모임 '어울림으로 하나 되는 세상'

4월 20일 장애의 날을 맞이하여 회원님들과 국내소모임 '어울림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부모로 살아가는 것을 주제로 장애를 극복한 홍보대사 박모세 성악가의 어머니께서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며, 수서역 일대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보는 체험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가한 후원자들은 입을 모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이 늘어나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서 나 또한 언제든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박모세 성악가 어머니의 강연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 장세진 회원 -

밀알복지재단은 앞으로도 회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내소모임 '어울림으로 하나 되는 세상'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링단 '어울림'

5월, 회원모니터링단 '어울림' 5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을 후원하고 계신 회원님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의 재단 활동에 대한 보고와 다양한 후원정보를 들으며, 재단 활동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매 시간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또 많은 정보를 공유해주셨습니다. 모니터링단 활동기간 동안 열심히 참여해주신 회원님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어울림'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재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후원하는 더 확실한 이유가 생겼고, 이런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밀알복지재단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 김종현 회원 -

"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안예인 회원 -

'어울림'을 통해 제공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늘 회원님들과 소통하는 밀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법인사무처 소식



2018년 서울시복지상(장애인인권분야) 우수상 수상

4월 18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2018년 서울시복지상(장애인인권분야)'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밀알복지재단은 특수학교(밀알학교)와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앞장서는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기업사회공헌스토어 '기빙플러스' 구로지밸리물점, 면목역점 오픈

4월 20일 기빙플러스 구로지밸리물점, 6월 12일 기빙플러스 면목역점을 오픈했다. 기빙플러스는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사회공헌 스토어이다. 현재 기빙플러스는 석계점, 구로지밸리물점, 면목역점이 운영 중이다.



'인블라썸(In Blossom) 마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H에서 발달장애인 예술가 14인의 '인블라썸(In Blossom) 마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 전시가 열렸다. '인블라썸'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성인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전문미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제15회 밀알콘서트

6월 8일, '제15회 밀알콘서트'가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렸다. 밀알콘서트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도 3천여 명의 관객과 함께하며 국내 최대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음악회로 자리 잡았다.

지역본부 | 해외사업장 소식



대전·충청지부 진로체험 인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5월과 6월, 대전 중앙초등학교, 증촌초등학교, 대청중학교, 괴정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눔 강연과 태양광발전 조립 체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진로체험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전·충청지부는 2020년 9월까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지부 2018 버스킹 공연 후원금 전달

6월 12일, 부산지부에 훈훈한 후원금 전달이 있었다. 작년부터 밀알과의 인연으로 후원을 이어온 김진홍 씨가 버스킹 공연으로 모은 후원금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달했다. 김진홍 씨는 '소외계층을 돕는 기부 문화 저변 확대에 일조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인천지부 성민병원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바자회'

6월 1일, 인천지부는 사회공헌협약을 맺은 성민병원과 함께 '이웃사랑 나눔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후원받은 다양한 물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으며, 수익금은 전액 장애아동들의 의료지원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지부 안산그리너스FC와 함께하는 나눔바자회

5월 25일과 26일, 인천지부는 상록수역 광장에서 축구팀 안산그리너스FC와 함께 나눔바자회를 개최하였다. 26일 저녁에는 안산그리너스FC 선수들의 사인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미얀마 양곤 사업장 'We need you' 프로그램

미얀마 양곤 사업장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We need you'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체능 활동을 지원한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춤과 노래, 운동, 그림 그리기, 악기연주 등 다채로운 경험을 쌓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말라위 은코마 사업장 말라위 '에너지 드림(Dream)타운 프로젝트'

'에너지 드림타운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태양광랜턴을 배분하고, 일자리센터를 설립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말라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젝트이다. 작년, 5,600개의 태양광랜턴을 배분하였고, 올해는 2,400개를 은코마 지역 6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지원하였다.

산하시설 소식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자연 속으로 떠나는 야외회

6월 14일,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의 직원들은 완주군 대야수목원과 동상계곡으로 야외회를 다녀왔다. 성금 다가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자연을 만끽하고, 생태체험활동과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7주년 감사대축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7주년 감사대축제가 열렸다. 할인행사와 먹거리 장터 등 지난 7년간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을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풍성한 축제의 시간이었다.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 2018 봄 야외회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 전 직원은 흥천 비발디 파크로 2018 봄 야외회를 다녀왔다. 업무로 인해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전직원 '2018 굿윌도봉 일본캠프'

6월 5일부터 7일까지,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교토, 나라지역)에서 사회성 훈련 및 상호소통의 기업문화 만들기, 외부활동을 통한 자립심 강화 등을 위한 '2018 굿윌도봉 일본 캠프'를 다녀왔다.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집합교육 '웃음치료'

6월 20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의 재가서비스 대상자 14명과 밀반찬 배달 봉사하는 노인일자리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강좌를 열었다.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미술체험과 짝체조 등을 하며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도봉어르신 걷기대회

5월 3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도봉 어르신 걷기대회 '나가 봄! 봄! 함께 봄!'을 개최하였다. 효문중학교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께 달아드리고, 모범어르신, 모범강사, 노인복지 기여자(단체)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주었다.



도봉시니어클럽 어린이 교통안전 책임지는 '스쿨존노란발자국'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쿨존노란발자국'활동은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도봉 어르신들의 수고로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되어 관내 학교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밀알그린보호작업장 '신바람 신바람'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

5월 29일, 밀알그린보호작업장 직원들은 성북도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신바람, 신바람'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오감체험, 다육식물 심기 체험 등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경험하였다. 또 이어서 참뽕보호작업장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더드림바자회' 개최

3월부터 6월까지, 매일 더드림스토어에서는 성남구 시청삼거리 숭골분수마당에서 '더드림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바자회 행사 1부에서는 더드림스토어 매장 홍보와 판매를, 2부에서는 마토펬스티벌과의 콜라보 등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도 펼쳐졌다.

산하시설 소식



밀알학교 드림대학(전공과) '힐링MT'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드림대학(전공과) 학생들이 강화도로 '힐링MT'를 다녀왔다. 학생들은 단체생활과 여행을 통해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익히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1인 가구 YOLO님을 울로 놀러오세요!

4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우쿨렐레 달라'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청년 1인 가구세대의 고립감 해소 및 자조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함께 악기를 배우며 아로마 테라피, 집밥 만들기, 홈트레이닝 강좌 등도 연계 된다. 7월 말에는 강남구 3개 기관과 연합하여 우쿨렐레 공연도 열 예정이다.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한 한국생활'

5월 2, 9, 16, 23일 총 4회에 걸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진 편집, 영상 만들기, 1인 미디어 전문가 되기 팁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EBS방송국을 방문하여 미디어와 관련된 직업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센터 자원봉사단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은 '세계 문화 여행' 프로그램, 남산골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 문화 체험 안내', 노을 공원에서 진행하는 '나무숲 조상'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였다. 다양한 봉사 활동에 내·외국인 주민 227명이 참여했다.



방학동밀알데이케어센터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5월 11일, 어르신들과 함께 북한산 기슭에 자리한 4.19 민주묘지에 방문하였다.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를 읽고 감상하는 '시(時) 치유'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에게도, 함께한 임직원들에게도 자연의 넘치는 생동감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대청 봄맞이 사랑나눔 바자회

4월 27일, 일원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주관의 '대청 봄맞이 사랑나눔 바자회'가 열렸다.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었고, 풍성한 먹거리장터도 운영되었다. 지역주민 베품시장과 연계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졌다.



쌍봉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금호석유화학과 함께하는 아쿠아리움 관람

4월 5일, 금호석유화학 김성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1:1로 짝을 이루어 함께 아쿠아리움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금호석유화학에서는 센터이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2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개관20주년 행사 '스무살의 봄'

6월 27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스무살의 봄' 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온 여러 업체와 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약밥 20m 이어 만들기 등의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2부 축제 순서에서는 총 열 개 팀이 참가하여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버스킹 밴드 공연, 비보이 댄스 등의 다채로운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산하시설 소식



면일어린이집 "엄마, 아빠와 함께 놀아요."

6월 23일, 면일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부모 참여 행사가 있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놀아요'라는 주제로 각 반 교실에서 자유놀이 및 오감활동이 이루어졌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놀이 활동을 즐기는 시간이었다.



안산밀알센터 봄 캠프, '강화에서 놀자!'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안산밀알센터 성인주간보호이용인, 직원 및 자원인력 총 34명이 봄 캠프를 다녀왔다. 5월의 푸른 자연 속에서 다양한 전시 관람 및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캠프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한 이용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 적응력을 높일 수 있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LS오토모티브와 함께하는 '5월재가장애인 문화파크'

5월 21일, LS오토모티브 기업후원으로 활동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파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용인에버랜드에서 총 64명(이용자 및 보호자 27명, 자원봉사자 및 직원 37명)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호자여가지원사업 '곤지암화담숲 나들이'

5월 15일, 안산주간보호시설은 올해 처음으로 뇌병변장애인보호자들과 함께 곤지암화담숲 나들이를 다녀왔다. 나들이를 통해 보호자들은 그동안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었고, 시설과 보호자들 사이의 관계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안산밀알보호작업장 광명소하리공정 견학

5월 30일, 기아자동차 광명소하리공장 견학을 다녀왔다. 자동차 부품제조 및 안제품 조립공정 등을 견학하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해미읍주간보호센터 문화예술체험 'JOYFUL' 제 15회 밀알콘서트 관람

6월 8일 해미읍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은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제15회 밀알콘서트'를 관람하였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부터 뮤지컬배우의 멋진 노래, 발레단의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창동밀알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사회적응 프로그램, '김수영 문학관' 방문

6월 21일, 창동밀알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수영 문학관'을 방문하였다.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방학동에 위치한 김수영 문학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며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2017 해외 빈곤 아동 선물보내기 캠페인 결과보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현지 직원의 선물 전달 후기

우간다 | 모기장

우간다는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모기가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에 튼튼한 모기장 350개를 각 가정당 1개씩 전달했습니다. 매일 잠을 설치던 아동들은 선물 받은 모기장 덕분에 안전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 물병

코트디부아르 사업장에는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아동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우물까지 가야 합니다. 휴대용 물병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며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450명의 아동에게 물병을 전달하였고, 물병 뚜껑을 컵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위생적입니다. (※ 물병 구매 후 남은 선물금은 선풍기 2대를 구매하여 유치원에 배치하였습니다.)

네팔 | 위생용품 세트

비누, 칫솔, 치약, 손톱깎이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위생용품을 13종을 구매하여 96명의 아동에게 전달했습니다. 위생용품을 하나씩 구매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아동들이 위생용품으로 식사 전후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 방한복

마다가스카르의 겨울은 6월부터 시작됩니다. 마다가스카르 사업장에서는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방한 점퍼 172벌과 바지 200벌을 선물했습니다. 아동들은 선물 받은 옷을 몸에 대보고 입어보며 매우 기뻐했고, 부모님들도 걱정을 덜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라이베리아 | 티셔츠

교복이 없는 라이베리아 사업장의 아동 130명에게 티셔츠를 선물했습니다. 새 티셔츠를 입고 신이 난 아동들은 빙글빙글 돌고 춤을 추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동들은 더이상 사복 걱정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옵니다.

탄자니아 | 체육복

빨강, 노랑, 파랑의 예쁜 체육복을 입은 아동들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체육복을 선물 받은 224명의 아동은 마음껏 운동장을 뛰어놀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 교복

미얀마 사업장에는 교복을 구매할 여유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아동이 많습니다. 아동들에게 교복은 단순히 옷이 아닌 학업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130명의 아동에게 새 교복을 선물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101명의 회원님이 총 4,485,000원의 선물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결연아동에게 웃음꽃을 선물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 진행될 선물보내기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밀알복지재단

후원사업명 변경 안내

밀알복지재단은 체계적인 해외사업운영을 위해서 후원사업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사업명 변경은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해외지역개발후원
→ 태양광랜턴후원

라이팅칠드런 캠페인 후원이 태양광랜턴후원으로 통합됩니다. 전기 없이 살아가는 개발도상국에 태양광랜턴을 보급하여 야간생활 안전보호를 지원합니다.



· 해외희망학교후원
→ 해외아동교육후원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아프리카 5개국에 총12개의 희망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사업을 확대하여 해외아동 교육후원으로 통합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이 희망학교에서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미션펀드
→ 해외지역개발후원

해외지역개발후원과 통합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외분야별특별사업
사업이 확대 되어 어린이 미래 인성 교육으로 변경됩니다.

에너지 나눔 체험교육
반짝반짝 에너지 대탐험
에너지 나눔 가족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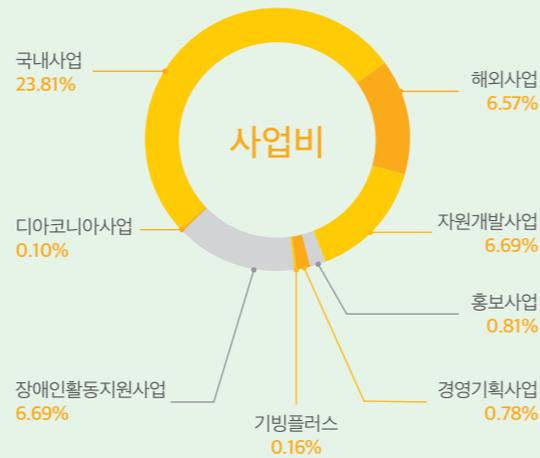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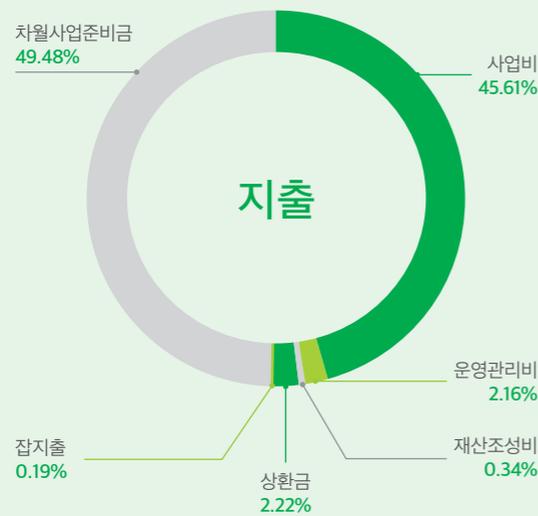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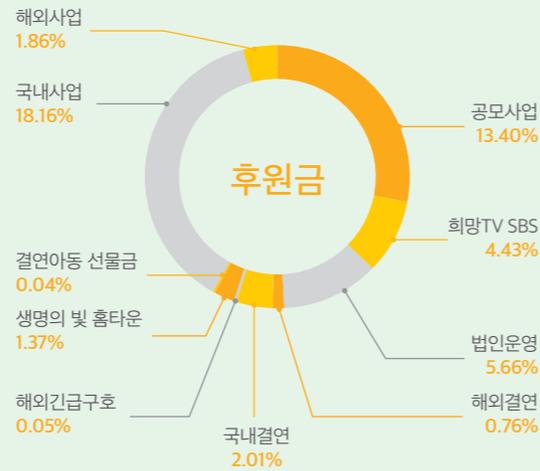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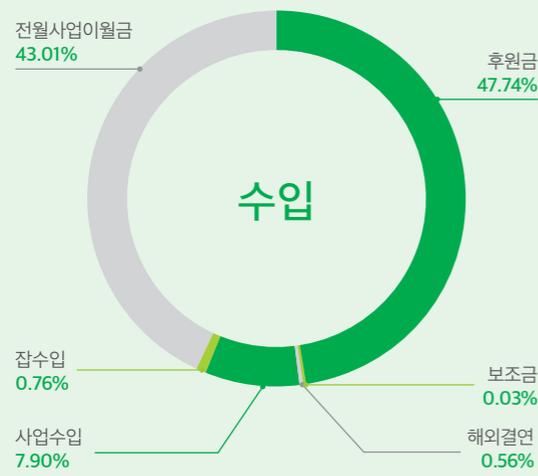
> 어린이미래인성교육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홈페이지 나의후원공간(나의상담내역)과
회원전화번호 1600-0966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18년2분기 밀알복지재단 결산 보고



수입

구분	내용	누계 (단위:천원)
보조금	위탁시설운영지원보조금, 기타보조금	4,200
후원금	국내(장애아동, 독거노인, 저소득가정)후원, 해외(보건의료, 지역개발, 아동교육)후원, 긴급구호후원, 공모사업후원, 법인운영후원, 생명의 빛 홀타운 수입 등	7,613,382
재산수입	정기예금이자 외	89,790
사업수입	기빙플러스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260,313
잡수입 외	예금이자 등 잡수입	122,052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0
전월사업이월금	사업이월금	6,859,435
합계		15,949,172

지출

구분	내용	누계 (단위:천원)
운영관리비	인건비 등 재단운영관리비	344,539
국내사업	국내아동결연 및 보육, 장애인의료 및 교육지원, 저소득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노인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인식개선사업, 생명의 빛 홀타운	3,799,057
해외사업	해외아동결연, 해외아동교육, 긴급구호지원, 보건의료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1,047,801
자원개발사업	미디어, 온라인, CSR협력, 회원서비스사업	1,066,431
홍보사업	언론, 출판, 홍보물 제작	128,569
경영기획사업	교육연구, 조직강화, 기획사업, 전산개발	124,382
디아코니아사업	리더쉽세미나, 디아코니아트립, 출판, 모금, 홍보	16,249
기빙플러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	25,24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1,066,726
재산조성비	기본재산취득, 임차보증금, 시설장비유지	53,671
상환금	부채 상환금*	353,481
잡지출	잡지출	30,688
차월사업준비금	사업준비금	7,892,337
합계		15,949,172

* 상환금은 법인운영으로 지정한 후원금으로만 사용됩니다.

* 결산조정에 따라 공시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 잠들어있는 물건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굿윌이 필요할때



당신의 작은 관심으로 기증한 물건이
장애인의 소중한 일 자리를 만듭니다.

기증문의

1670 - 9125

www.time-miralgoodwill.org

이 캠페인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함께합니다.

01

재사용 가능한 물건을

봉투에  가득 담아요.

02

가까운 굿윌스토어를 찾아가

물품 기증하고  쇼핑도 하고!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지점안내

- 밀알구리점**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62
- 밀알송파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 밀알도봉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17
- 밀알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8
- 밀알대전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77번길 1 **9월 오픈예정!**

국내사업장

법인사무처	02-3411-4664
경기지부	031-235-4667
경남지부	1600-0966
대전·충청지부	042-223-4669
부산지부	051-853-4665
인천지부	032-506-4668
전남지부	1600-0966
전북지부	1600-0966

| 장애인복지사업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강남당기보호센터	02-2184-8799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	031-524-9891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02-6910-9191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02-6913-9100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063-282-9192
굿윌스토어 밀알대전점	042-345-2002
밀알그림을 나눔의 집	02-3401-1084
밀알그림을 동행의 집	055-753-1456
밀알그림을 섬김의 집	02-449-3478
밀알그린보호작업장	02-3411-8300
밀알보호작업장	02-2184-8740
밀알베이커리	02-2184-8702
밀알학교	02-3412-1133
샘물밀알의집	031-339-0780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031-777-9041
안산밀알보호작업장	031-402-2484
안산밀알센터	031-401-0902
아름드리그림출	031-414-3171
안산시장애인복지관	031-403-0078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031-418-9863
우리플러스작업장	02-2184-8771
옥수그림출	031-705-3398
쌍봉장애인주간보호센터	061-685-1153
한우리주간보호시설	02-2184-8769
해마울주간보호센터	02-3412-7747

| 노인복지사업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도봉데이케어센터	02-990-6670
도봉시니어클럽	02-3492-3009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02-3494-6060
목련데이케어센터	02-3412-2226
방학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55-6090
창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95-7890

| 아동복지사업 |

면일어린이집	02-495-4604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여천제일어린이집	061-681-7170
중림어린이집	02-364-7534

청마을어린이집	02-459-6335
쌍봉지역아동센터	061-681-7279

| 지역사회복지사업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2-2222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3346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밀알아트센터	02-3411-4661
쌍봉종합사회복지관	061-681-7179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02-2075-4180

| 아시아 |

네팔 (카브레, 카투만두)
레바논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태국 (치앙마이, 핏사눌록)
필리핀 (체존, 바릴리, 막탄)

후원문의

1899-4774

ARS후원 | 한통에 5천원

060-700-1022

후원계좌

하나은행
123-123456-12105

예금주 |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

해외사업장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리스텐버그, 프리토리아)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 일라피)
말라위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코자디부아르
탄자니아